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맥추감사절 麥秋感謝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둔이니라
(출 23:16)

매년 7월 첫 번째 주일은 한 해의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날로서 한국교회는 맥추감사절로 지킵니다.

맥추절(麥秋節)은 오순절(五旬節) 혹은 칠칠절(七七節)이라고도 불렀습니다.(출 23, 34장, 레 23장, 신 16장) 오순절은 유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 시내산에 강림하신 날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오순절을 율법수여절로 지킵니다.

기독교에서는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신 오순절을 성령강림절로 지킵니다. 오순절이란 명칭은 신약 성경에만 나옵니다.(행 2:1, 20:16, 고전 16:8) 오순절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명칭이라면, 맥추절은 이스라

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 밀과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서 지킨 절기입니다. 따라서 초실절(初實節)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출 34:22)

성경적으로 맥추절과 오순절은 같은 날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에서는 오순절은 부활절 후 50일째인 성령강림절로 지키고, 맥추절은 7월 첫 번째 주일로 구별해서 지킵니다. 그것은 한 해의 전반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맥추절의 초점은 감사에 있습니다. 현대화된 도시문화 속에서 농경문화의 전통들이 사라져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의 마음은 결코 잊지 맙시다.

(편집부)

열린프로그램 여름학기 모집

교육위원회(위원장:김혜연 장로)는 문화나눔, 말씀에 기반한 기독교문화의 형성,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교회 중심의 리더 양성 문화를 고취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열린 교회로 변화하고자 합니다.

1. 학기 운영 : 클래스당 3개월 단위
(겨울, 봄, 여름, 가을), 10주 코스
2. 23년도 여름 학기: 7. 8일(토)-9. 10(주일), 10주
3. 운영비 : 각 클래스당 월 15,000원
(3개월 : 45,000원) /교회지원 45,000원

※단, 교회지원은 서울교회 등록교인으로 한정하며 1인이 2개 클래스 이상 신청 시, 교회지원은 1개 클래스만 적용됩니다.

4. 문의 및 신청 : 남재은 집사(010-9189-8019)
5. 구글 신청서 양식

<https://forms.gle/8SRFfuTYF8ucwEEw5>



강남노회 남선교회 제4회 선교찬양잔치

강남노회 남선교회 주최 제4회 선교찬양잔치가 7월 15일(토) 오후 3시에 서울교회에서 열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김은석 최윤희 김영희 장상국 이경순 임종현 최근우 오명걸 한대석 안수집사로 구성된 필그림중창단이 출전합니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군입대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기 바랍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최건 허정 이우찬 김준현 권동영 김종훈 김재용 이상민 한지원 경건웅 이강현 최윤학 이진우 이정환(군의관) 안중호 소위 황수지 중위 김정균 소령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구분	요일	시간	과정	장소	강사
클래식기타합주	주일	12:40-	10주	505	장윤식 집사
통기타	주일	12:40-	10주	605	박민서 집사
	토	11:00-	10주	505	김상윤 선생
베이스기타	토	12:20-	10주	505	
드럼	토	11:00-	10주	601	한도연 선생
색소폰	토	14:00- (90분)	5회	505	최명아 선생
찾아가는힐링연기	토	19:00	10주	701	박재현 배우
말씀(말씀안에 성장성곡)	주일	10:00-	10회	505	
핸드벨	주일	14:30-	10주	402	송재월 권사

스데반회 7월 특강

강사 : 홍범기 박사(강남세브란스 심장내과)
7월 22일 토요일 오후 4시30분 웨민홀

스데반회(회장:홍창훈 안수집사)는 7월 특강을 7월 22일(토) 오후 4시 30분에 웨스트민스터홀에서 갖습니다. 강사는 협심증 및 허혈성 심

질환, 관상동맥중재시술, 고지혈증에 권위자이신 강남세브란스 심장내과 홍범기 박사님입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부탁드립니다.



강사:홍범기 박사

우리의 남은 사명

(딤후 4:1-8)



손달익 위임목사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시 90:12), 모세의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에 대해 궁금해 합니다. 성경은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오고,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살 날이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흥해를 건넜습니다. 흥해를 건넜다는 것을 성경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물을 통과했다는 의미로 세례

를 받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이고, 또 한 가지는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났으므로 자유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날 잘못된 것에서부터 벗어나 거듭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고, 동시에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방종이 아닌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흥해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서울교회와 서울교회 성도들을 많이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살아있을 동안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북한교회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저에게는 서울교회를 위해서도,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북한교회를 위해서도 일할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세 가지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1.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가 남은 세월을 보람 있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명령들이 매우 엄중함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 역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엄중히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엄중한 평가가 따를 것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할 즈음 지도 교수님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교회를 가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는 교회를 잘 진단해 보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빙긋이 웃으시며 “자네가 교회를 진단하는 사이에 교회도 자네를 평가한다는 것을 아시게”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었고 평생의 교훈으로 삼게 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평가하고 진단하는 동안 세상도 우리를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가 앞에 옳다고 인정받기 위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엄중히 받아들이는 하나님이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2. 시대를 분별하라

바울은 사람들이 옳은 이야기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의 욕심만 만족시켜주는 이야기에만 따라가는 날이 올 것임을 말씀하면서 제자 디모데가 살아가야 할 시대의 어려움을 설명해 줍니다.(3-4절)

바울이 살았던 시대도 험한 세월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온 시간들을

간증하는 것을 보면 정말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 디모데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이보다 훨씬 더 험할 것이므로 디모데가 그것을 잘 깨달아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잘 분별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저는 요즘 젊은 목사님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한편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저와 같은 세대의 목사들은 앞선 선배 목사들로부터 80년대, 90년대의 성장하고 활발한 교회를 물려받아 목회하면서 큰 어려움 없이 지루함도 없이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 목회를 시작하는 후배 목사들에게는 어찌다가 이렇게 쇠퇴해가는 교회를 물려주게 되어서 마음이 아프고 미안한 마음이 너무 큼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의 시대는 예수 믿기가 더 어려운 시대가 될 것 입니다. 세상의 모든 풍조가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공산당이 와서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했지만 앞으로는 AI가 찾아와서 위협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후대는 이제 상상할 수도 없는 도전과 위협이 도래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흥해를 건넌 우리 모두는

지난 날 잘못된 것에서부터 벗어나

거듭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고,

동시에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방종이 아닌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3. 신중하고, 고난 받으며, 직무를 다하라

신앙생활은 생각을 깊이 하고 사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세상에 보이는 현상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깊은 생각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오래전 제가 어느 교회 고등부를 지도하게 되었을 때 고등부수련회를 가려고 하는데 교회 어른들이 말리십니다. 그전 해에 수련회에서 한 고등학생이 익사 사고를 당해서 아직도 그 상처가 학생들의 마음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사

망한 고등학생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던 학생이고, 아들을 따라서 그의 어머니가 교회를 나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아들이 수련회에 가서 그렇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그 가정에 심방을 갔습니다. 아직 믿음 생활이 뭔지를 잘 모르는 그 어머니는 촛불을 켜 놓고, 성경책도 펴놓고 아들 사진을 앞에 놓고 울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예수를 믿으려면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야 되겠네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어머니의 말씀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생각을 많이 하고 신중하게 사는 것입니다. 경거망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맞다 틀리다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이 고난을 왜 주시는지, 내 앞에 있는 혜택들이 선악과인지 생명나무 열매인지를 분간하는 신중한 생각들을 늘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아갈까, 흥해작전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엄중한 명령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하여 혼란한 세상에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오류 없는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을 끝날까지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 속에서 옳은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 정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신중한 걸음으로 전도자의 직무를 끝날까지 감당하십시오! 그리하여 흥해 건넌 사람의 용기와 담대함으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흥해작전 마지막 날인 지난 주 찬양예배 설교 말씀)

홍해를 건넌 사람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황선희 권사
(7교구)

홍해작전을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 상태를 되돌아보니, 너무 허무하고 찻찻한 마음 금하지 못하여 "주여 나를 고쳐 주소서" 고백하게 되며 눈물이 나네요.

16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언 60년이 흘렀습니다. 16살 때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마냥 즐겁고 기쁘게만 교회를

다녔드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젊었을 때는 내 나름대로 신앙의 잣대로 하루의 일과를 끝마치고 집에 들어가 '아~ 오늘 이 정도면 괜찮은 하루였어!' 하며 내가 나 스스로를 칭찬하고 자족하고 자만하며 하나님 앞에 교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부끄러운 마음에 예수님께 나아왔던 수많은 병자들처럼 먼저 나의 부끄러운 상처를 내어 놓습니다.

그렇게 싹트고 자라가는 작은 신앙 속에서도 외할머니, 큰언니를 비롯하여,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며 학교 담임선생을 찾아가 "교회 간다고 공부를 안 하니 교회 못 다니게 해달라"고 고자질한 작은 언니(감리교 은퇴장로)와 남동생(목사), "교회 가면 밥이 나와? 돈이 나와"라며 교회 출입을 극구 반대하시던 어머니(이종윤 목사님 집례로 천국 가심), 모두 구원받게 하심으로 저희 가정에도 하나님의 꾸준한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있었음을 고백 드리며 가정을 고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30여 년 전 서울교회에서 만난 목사님의 하나님 말씀 속에 잘못된 신앙을 바른 신앙

으로 바꾸려 애쓰던 모습, 비록 현실은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며 상처 입어 나의 십자가가 너무 힘들어 나 혼자 해결할 수 없어 마치 '12년 혈루병 걸린 여인', '38년 된 중풍병자와 다름바가 없다는 중증의 환자였지만, 이번 홍해작전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고치시는 손길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시간들이었음을 고백 드립니다.

이제는 말씀에 의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맞이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 인도하시네" 축복아래 "고침 받은 자"로 살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베풀어주신 기적! 저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김미성 권사
(8교구)

2023 홍해작전! 남편은 몇 달 전부터 홍해작전 팀을 꾸리고 무장하고 기도하는데 아내인 저는 그 뒤에 숨어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3시에 일어나 다닐 수 있을까? 주위 어른들도 아직은 무리다. 영상예배 드리라 권면을 하셨습니다. 저는 암 치료 끝난 지 5개월, 오랜 항암치료 부

작용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편하고 순간순간 떨어지는 체력으로 핑계하기 좋은 상황이었지만, 아는 분의 아픈 소식을 접하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이미 생생하게 체험한 터라 갈등이 사라지고 몸은 벌써 홍해작전 시작 전부터 교회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홍해작전을 기도로 준비하려니 2022 홍해작전이 생각나며 수많은 얼굴들이 생각났습니다. 불과 3개월 전 이상 없다는 검사 결과가 있었는데 코로나에 걸려 통증으로 가슴을 움켜쥐다 명을 발견하고 코로나 후유증인가 싶어 지내다 불편한 마음에 검사해 보니 청천벽력 같은 결과였습니다.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때 주께서는 이미 계획해 놓으신 듯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였고, 수술하고 방사선 치

료 정도 하면 되겠다며 수술 날짜도 잡혀 조용히 한 달만 견디자. 수술 검사 진행 중 수술이 취소되고 항암부터 그것도 8차까지... 인생의 종말 앞에 한없이 나약해지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루라도 멀쩡할 때 가족들과 못다한 일들을 하며 뷰티풀 랜딩을 준비하고 싶어 항암을 거부하려니 애들이 울면서 어찌서 우리 엄마냐고, 엄마한테 하나님은 최우선이었고 엄마처럼 신실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런데 왜? 만일 엄마가 잘못되면 하나님 믿을 자신이 없다고 항변하는 아이들 앞에 겁이 덜컥 났습니다. 남편은 우리가 믿음을 보일 때며 고난의 때에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가를 유산으로 남겨야 하지 않겠냐며, 하지만 그분 앞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국가에 바친 남편을 되찾자마자 코로나로, 퇴직하면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나서려는데 장로라니요? 교육을 마치고 임직을 앞두니 암이라니요? 어찌라고요? 한없이 낮아지고 낮아져 애통해할 때 우리 주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가족들이 아 니고 저에게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항암치료 중이었을 때, 온 교회가 기도해 주셨고, 수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을 모아 주셨고 홍해작전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저에게 내어 주시며 눈물로 호소하게 하신 걸 알기에 저는 영상이지만 같은 시간에 예배하며 기도하던 중 항암 2차에서 종양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우리

부부는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주께서 긍휼을 베푸신 기적이라 고백할 수밖에요. 전이를 막기 위해 항암은 8차까지 진행됐고 근원 제거 수술 결과는 완전관해(암세포가 하나도 나오지 않음), 방사선 치료까지 마치고 올해 부활절에 교회로 복귀하였습니다.

2023 홍해작전!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라는 주제 성구에 기대와 설렘과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의 빛을 기억하며 저 또한 2023 홍해작전 첫 번째 기도를 '환우들의 몫으로 내어놓았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위임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님들과 성도님들,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시공을 초월한 기도와 엄마 앞에서는 씩씩하더니 밖에서 둘이 만나 울고 다녔다면 딸, 아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주님만 주목하니 24시간 동행하시는 나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셨습니다.

기가 막힐 수렁인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 베푸신 훈련과 아버지의 사랑이었음을! 저에게 베푸신 기적을 우리 환우들께도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2023 홍해작전 기간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간구하며 17일간을 꿈을 꾸듯 완주하였습니다. 2023 홍해를 건넌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저의 첫 번째 기도 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박윤호 성도
(청년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홍해를 건너기 전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길을 걸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결코 두가지의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매일 새벽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첫 번째는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대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면서도 뒤쫓는 애굽의 군대를 두려워하는 것은 어리석음이었습니다. 홍해작전 기간 동안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다 이기시리라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는 단순히 출석만 하는 시간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새벽을 깨워 교회를 왔다는 것에 스스로 타협하지 않고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자 했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끝나는 것이 아닌 숨 쉬고 있는 모든 시

간이 홍해를 건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매 순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는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 의지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20대 청년으로 살아가며 때로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저를 나약하게 만들기도 하였지만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쳐주시길 간구함으로써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위임목사님께서 고침 받길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기도와 묵상을 통하여 ‘나의 고침 받아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직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홍해작전 기간 동안 가장 마음속 깊이 남은 것은 ‘주님의 자녀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환자들에게 직접 찾아가 고쳐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삶의 기적이 수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할 것입니다.

작년 가을, 서울교회에 처음 나오기 전까지 제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성전을 찾아온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길이 보이기 시작하였고 저의

홍해작전은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교회를 나와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부터 17일간의 홍해작전을 승전할 수 있었던 것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순례자에서 홍해작전을 영적 HIIT (high intensity interval training)라고 생각하신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도전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홍해를 건너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다는 믿음을 보고 처음으로 참여하는 홍해작전이 저에게 영적 성장의 큰 계기가 되길 소망하였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떠올릴 수 있고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며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구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감사한 일은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살아가며 마주하게 될 홍해들이 많겠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길을 준비하고 계시며 어떠한 나약함이든 반드시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말씀 안에서 기도할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3 홍해작전 개근자>(총103명)

- ◆ 1교구 - 18명
황금선 김은숙 양준경 이인숙 석춘희 김애리 황정임 송미령 권택숙 송미정
윤춘섭 최재련 전화선 채교천 김영선 정금희 김정두 이경선
- ◆ 2교구 - 17명
신금전 전희정 최금숙 나현주 박진주 김영표 김인아 전홍구성현 최형열
김찬진 양계화 권소희 한명자 김정희 박영실 김준목
- ◆ 3교구 - 7명
김혜란 박미영3 정춘혜 고선옥 주화인 이미송 김은희

- ◆ 4교구 - 13명
이영옥 관석자 오용이 박복순 정미연 남태영 박정자 박민숙 이순형 이상섭
박진희 최원자 차영도
- ◆ 5교구 - 15명
정진영 한상준 임우택 한대석 구진영 이태승 최현인 조정옥 임명숙 홍석현 송민정 박관훈 한성현 한도연 길진희
- ◆ 6교구 - 17명
한주찬 김수호 장해라 노문환 장정화 윤성남 이영희 윤훈민 유충기 임대중 서희숙 임상현 김미선 김복희 송성식 정

- 희순 김명심
- ◆ 7교구 - 3명
전미경 김승록 황선희
- ◆ 8교구 - 6명
서문석 한춘홍 김미성 이순영 이관규 이봉선
- ◆ 9교구 - 6명
박윤호 이강전 김지은 심상필 오정수 이영희
- ◆ 새가족 - 1명
김성순



- 지난 6.24(토) 홍해작전 마지막 날에 있었던 자녀들을 위한 축복기도 시간 -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금보다 더 귀한 자녀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녀들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굳게 선 신앙의 아들, 딸들 되게 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룩한 품성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한 목자되시어 이 자녀들 앞 길을 인도해 주소서.”
(손달익 위임목사님의 축복 기도 중)

한마음축제! 하나되는 서울교회!



오치열 장로
(2023 한마음축제 본부장)

한마음축제가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뜻깊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분란이 있기 전에는 매년 격년제로 체육대회와 찬양대회를 시행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체육대회를 시행하기로 하고 일정을 5월 5일 어린이날로 정하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미루어져 7월 29일 토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동 기간에 아가페에서

연합수련회가 계획되어 마지막 날에 전교인의 모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7월의 무더위에 체육대회가 아니라 그토록 한마음으로 소망하던 교회가 회복되고 처음으로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즐기는 축제로 담자는 의견에 따라 한마음축제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즐겁고 기쁘고 뜻깊은 친교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더위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시원하고 알찬 내

용으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 뜻깊은 행사에 이미 여러 후원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어 감사를 드립니다.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는 푸짐한 먹거리와 함께 선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모두 가족과 함께 동참하시어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의미 있는 축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6.25를 기억하며

전쟁은 하나님 손 안에



정병무 은퇴장로
(6교구)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36년을 지나 해방을 맞았고 그 후 5년이 지나 6.25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950년 7월 중순, 당시 저의 아버지는 고향의 면장 직에 있었고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전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철부지인 저는 피난을 가지 않겠다고

아버지의 뜻을 알 바가 없었지만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면민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먼저 피난을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배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소련의 스탈린, 북한의 김일성, 남한의 박헌영 3명이 전쟁 발발 약 2개월 전에 전쟁을 획책(劃策)하고 모든 무기는 소련이 지원한다는 원칙을 세우면서 한편은 2차 대전의 연합국인 미국과의 직접충돌은 피하려고 파병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때 마침 남한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의 끈질긴 반미책동과 철수 데모로 배신감에 치진 미군은 참다못해 우리나라에서 철수하여 극동방어선을 일본해에까지 후퇴하게 되었으며 이를 “애치슬라인”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미군이 철수를 하게 되니 남한은 방

어선이 공백 상태가 되어 북한으로서는 적화통일의 절호의 기회를 얻고 남침계획을 초특급으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남한은 탱크 하나 없고 소형무기 하나 제대로 없는 무장해제 상태가 되어 속수무책(束手無策)으로 남침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서 유엔의 승인을 받은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는 공의를 나타내시어 2일 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게 하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 전쟁 발발 보고를 받고 그 급박한 와중에도 2시간을 할애하여 골방에 들어가서 동방의 예루살렘 우리나라를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미국, 소련, 중국, 영국, 프랑스 5개국이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되어 중요 사안을 결정할 때 그중 한 나라만 거부하면 부결될 수밖에 없는 유엔헌장이 한국을 돕는 의제 앞에 가로놓인 흥해가 되어있었습니다. 유엔이 한국 파병을 논의하려고 회의를 소집했는데 때마침 소련 대표 “말리크”라는 자가 불참을 하여 출석한 다른 4개국이 만장일치로 결의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중국은 “장개석” 총통이 이끄는 자유중국이 “모택동”의 공산당에 쫓기고 있었지만 유엔에서의 기능은 살아 있어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어떤 사유로 소련 대표가 불참

하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아마도 하나님의 손길이 자유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었고 또 북음전파의 아시아 전초기지인 이 나라를 지켜 주신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은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역전되었고 낙동강 최후 방어선 중에 경북 칠곡군 다부동 전투는 낙동강을 피로 물들인 격전지였습니다. 드디어 그 해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하고 여세를 몰아 반격을 해서 평양과 함흥을 점령하고 청진까지 진격하는 승기를 잡았으나 1951년 1월 4일 중공군 30만 명이 대거 투입됨으로 1.4후퇴라는 이름하에 눈물로 서울을 다시 내어주는 수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약 3년 1개월이 지난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휴전협정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시 127:1)라는 말씀대로 안전보장이사회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믿음의 증거와 실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지내며 73년 전의 참상을 돌아보고 또 한 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믿음의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되새겨 보며 어떤 역경에서라도 먼저 우리 모두는 전능자의 편에 서서 주님의 손길을 간구하는 성숙된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학교 연합수련회! 이 여름 뜨거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대석 안수집사
(유치부 부장)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기대되는 소식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2023년 서울교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교회학교 연합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에서 벗어나 다 함께 찬양하며 뛰놀며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여름이야기"라는 주제로 뜨거운 여름 주님과 만나는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에 오지 않으면!

성령이 불타는 교회를 맞볼 수 없습니다!

이번 수련회에 함께 하지 않으면!

서울교회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없습니다!

이번 수련회에 풍당 빠지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수영장에서 송송 내려오는 워터슬라이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수련회에 단 하루라도 참석하신다면 이 모든 것을 평생 남는 추억으로, 주님께서 부여하시는 은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결정하십시오!

뜨거운 여름, 성령의 불로 더더더 뜨거운 여름을 보내겠다고 말입니다.

가족이 모두 오면 가족단위 수련회 비 할인!!

친구와 함께 오면 친구는 공짜!!

어쩌면 다시 오지 않을 뜨거운 은혜의 여름수련회에 함께 해요!!

7월 27일(목) 청년부수련회로 7월 28일(금)-7월 29일(토)로 이어지는 연합수련회 그리고 7월 29일(토)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까지!!

이번 여름 서울교회는 뜨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참석만 해주시고 주변에 많이 많이 알려주셔서 많은 성도들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의 여름 이야기"



지난 주일 8층 만나홀에서 전교인 대상으로 투표한 교회학교 연합수련회 디자인 투표



영·유아부 여름성경학교

하나님께 예! 예! 예!



최근우 집사
(유아부 부장)

영·유아부 여름성경학교가 7월 15일(토)-16일(주일) "하나님께 예예예"라는 주제로 유아부실(706호)에서 열립니다. 이 귀한 하나님 나라 잔치에 3세부터 5세 어린이를 초대합니다.

어린 유아의 때에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자 초석입니다. 저희 교사들은 귀한 섬김의 자리에서 매 주일 따뜻한 광경을 목도합니다. 그것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유아들의 신앙생활을 돕고자 애쓰시는 부모님, 조부님들의 모습입니다. 유아들의 예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어른들의 모습은 마치 우리를

흐뭇하게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옵니다. 여름 동안 흐트러지지 않는 유아부 어린이들의 신앙 성장을 돕고자 여름성경학교가 열립니다. 영·유아부 여름성경학교는 '예배'라는 다소 어려운 주제를 요리, 신체, 음악, 미술 활동으로 즐겁게 배웁니다. 유아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유리드믹스 활동, 말씀 북 만들기, 센터 학습을 진행합니다. 유아들이 좋아하는 과일 주스 만들기과 물놀이 시간도 있습니다. 성경학교 주제를 오감으로 배우고 체험하고 배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단

단한 열매를 준비하는 여름 나무의 지혜를 이번 성경학교를 통하여 배우길 바랍니다. 단단한 신앙의 열매를 준비하는 영·유아부 여름성경학교에 유아들을 보내주세요. 신앙 안에서 잘 자란 유아들은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 훗날 울창한 숲을 이루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쉼터가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 받는 어린이로 자라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 교사들은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진행될 영·유아부 여름성경학교를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교회에 뿌리 내리게 하소서

새가족부(부장:노제현 장로, 지도교역자:박미라 전도사)는 지난 주 6월 25일 주일 2부 예배 후 802호에서 2023년 2분기(4월-6월) 새가족부교육 수료자를 환영하는 새가족환영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손달익 위임목사님은 환영 인사에서 "이렇게 귀한 새가족을 서울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새가족들 가운데는 타 종교에 몸 담았거나 종교가 없었거나 다른 교회에 출석하셨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든 신앙의 터전이 바뀌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진통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것은 나무를 옮겨 심으면 뿌리를 내릴 때까지 나무가 썩는 몸살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잠깐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금방 서울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적응하여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또 새가족부 선생님들께서도 여러분들이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여 도우실 것입니다. 이제 서울교회에 오셔서 새가족부를 수료하셨으니 부디 신앙이 굳어지고 열매를 많이 맺으시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교구에 편성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 여러분의 봉사와 섬김이 서울교회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라고 하시며 새가족을 축복 하셨습니다.

이날 식사 자리에는 새가족부 수료자들의 소속 교구장, 지도교역자, 다락방장들이 함께 참석하여 다락방에 연계하여 앞으로의 교회 생활과 다락방 모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식사 교제가 끝난 후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며 마지막으로 박미라 전도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삶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앞으로의 삶이 더욱 복되게 하옵소서"라고 새가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므로 환영회 시간을 마쳤습니다.

이날 2분기 새가족부 수료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미옥 님(4-2, 뽕뽕), 이현주 님(1-2, 마리아), 박혜숙 님(3-5, 사라), 최혜수 님(5-4, 모세), 홍호선 님(5-4, 한나), 이성형 님(2교구, 청년부)

해당 다락방장과 소속 전도회의 회장은 새가족분들을 잘 인도하시어 앞으로 서울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새가족분들 가운데 최혜수님, 홍호선님은 부부이시며 교회 앞에서 에펠타버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로 5교구장 오치열 장로님이 즉석에서 수요노방전도팀을 위해 햄버거를 섬겨주셔서 훈훈함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새가족분들이 앞으로 서울교회에서 신앙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관심과 뜨거운 기도 부탁드립니다.

취재 허숙 권사(편집부)



유년부 친구 초청 달란트 잔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배인혜 전도사(유년부 지도 교역자)



6월 25일 주일, 유년부에서 상반기 달란트 잔치가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달란트 잔치를 준비하는 교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학생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를 알려주자!" 이에 모두 한 마음으로 영혼들을 생각하며 기쁘게 준비하였습니다.

달란트 잔치는 자신이 모은 달란트로 물품을 구입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니 많은 달란트를 모은 학생과 새 친구 사이의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학생들이 "친구를 초대하여 함께 잔치를 누리도록" 권면하였습니다. 달란트 잔치에 친구를 초청하자고 했더니,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친구도 달란트 줘요?" "그럼!" 흔쾌히 새 친구에게도 달란트를 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 약속은 친구를 전도하기에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행사 당일, 12명의 새로운 친구들이 왔습니다. 신나는 찬양시간에 이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복음 이야기가 선포되었습니다. 기존의 학생과 새 친구 모두에게

가장 귀한 예수님 복음이 심겨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달란트 잔치에서는 전도한 학생과 친구가 함께 다니며 달란트로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친구와 함께하니 기쁨은 배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즐거운 달란트 잔치였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듯,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도, 오늘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도, 모두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유년부 학생들에게 한 가지 분명한 가치를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임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운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기쁨의 하나님 나라를 유년부에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유년부 학생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는 마음을 부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유년부 학생들이 하나님 나라 복된 소식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며 함께 누리는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2023 성경암송대회



2023년 성경암송대회 범위와 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도 많은 성도들의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11.11(토) 일반부 본선
11.12(주) 교회학교 본선
- 범위 : 잠언 9장-16장
(4년간 잠언 전 장 암송)
- * 부별 대상 수상자는
11월 13일(주) 찬양예배 시 암송

70인전도대 7월 전도 일정

날짜	주일 (오후1시-2시)	날짜	수요일(전도회) (오후 1시-2시)	날짜	토요일(선교회) (오후 1시-2시)
				7/1	빌립 안드레 베드로
7/2	자원자	7/5	도르가 루디아 뵈뵈	7/8	바울 엘리야
7/9	자원자 마리아	7/12	한나	7/15	모세
7/16	자원자	7/19	에스더	7/22	이삭
7/23	자원자	7/26	리브가	7/29	한마음축제
7/30	자원자				



6월 28일 수요노방 전도 (리브가전도회)

득남



- 손형호 집사·박시은 성도 가정
6.26일 득남
(8교구 손태현 안수집사·박혜옥 권사 손자)

식사 제공

- 최지욱 안수집사·이정현 집사 / 최유현 집사
(부친 최광성 장로 잘 회복됨을 감사드리며)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일 자	요일	1년2독	확인
7월3일	월	시 103-105		7월3일	월	창 1-7	
7월4일	화	시 106-107		7월4일	화	창 8-13	
7월5일	수	시 108-112		7월5일	수	창 14-19	
7월6일	목	시 113-118		7월6일	목	창 20-24	
7월7일	금	시 119:1-80		7월7일	금	창 25-30	
7월8일	토	시 119:81-176		7월8일	토	창 31-35	
7월9일	주일	시 120-129		7월9일	주일	창 36-41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홍해작전 기간 동안의 새벽기도가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예배와 섬김, 신행일치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2. 7월 29일(토) 한마음축제, 27-29일 교육부 연합수련회 서울교회 온 성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상황을 다스려 주시고, 70인전도대와 전도회, 선교회가 함께 하는 전도 현장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로 함께 하여주소서.
3. 대한민국이 복음위에 통일된 나라로 나아가도록 친히 다스려 주시고,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전쟁과 분쟁이 있는 곳에, 튀르키예를 비롯한 재난과 고난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평화와 위리가 임하게 하소서.

■ 섬기는 분들

◇ 손달익 위임목사

- ◇ 부목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 ◇ 전도사
박미라 최종국
- ◇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손주찬
- ◇ 교육전도사
김예지 배인혜 김가은
- ◇ 협동목사
전재홍 양정호
- ◇ 시무장로
이계홍 오치열 안인호 최형열
- 차도훈 이강인 차영도 유충기
- 서은석 김광태 노재현 김혜연
-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청년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2부 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minster홀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웨스트minster홀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101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영여성경부	오전 10시 15분 - 11시	802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8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6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오후 2시	609호

■ 서울교회QR코드



■ 교회 오시는 길

